

IFRS in Focus

IASB와 FASB는 회계기준의 정합화(convergence) 계획을 변경

내용

- 정합화(convergence) 계획의 변경
- 개정된 일정표
- 개정된 work plan에 포함된 주요 IASB 프로젝트의 요약
- 주요 연락처

2010년 6월에 발표된 IASB의 work plan 변경

주요 사항

- IASB와 FASB는 2010년 2분기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다수의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외부검토자의 능력에 관한 우려에 대한 응답으로 정합화 계획을 변경하였다.
- IASB는 금융상품, 수익인식 및 리스와 같은 일부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외의 프로젝트, 특히 제거, 자본의 성격을 가지는 금융상품 및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주요 프로젝트의 일정을 연장하는 변경된 work plan을 발표하였다.
- IASB와 FASB는 매 분기에 발표할 중요하거나 복잡한 공개조안의 수를 4개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 새로운 제안사항에 대한 패키지로서 시행일과 경과규정 적용방법에 대한 외부검토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문서가 발표될 것이다.

IFRS in Focus is our new IFRS newsletter. It replaces the IAS Plus Newsletter. IFRS in Focus provides key information and insights on recent accounting developments. We hope you find it informative and user-friendly. We welcome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Please send them to DTTGLOBALIASCO@deloitte.com. And don't forget, with over 11 million visitors, IAS Plus is the most comprehensive source news about IFRS on the Internet. Please check in regularly at iasplus.com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uk

정합화 계획의 변경

2010년 6월 2일, IASB와 FASB는 IFRS와 US GAAP의 정합성에 대한 변경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기준서의 제정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IASB와 FASB는 2006년에 양해각서(MoU)를 최초로 체결하였으며, 2008년에 양해각서를 갱신하였다. 양해각서의 목적은 IASB와 FASB 회계기준 중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정합화하는 것이다. 2011년 6월까지 양해각서상 프로젝트를 완료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매우 적극적인 work plan이 수립되었다. IASB는 또한 전체 work plan의 일부로서 양해각서상 프로젝트가 아닌 다수의 프로젝트를 IASB의 의제에 추가하였다.

G20 지도자들은 IASB와 FASB의 정합화 노력을 여러 차례 지지하였다. 2009년 G20 지도자들은 "IASB와 FASB에게 독립적인 회계기준 제정과정의 맥락에서 고품질의 단일 글로벌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노력을 증진시키고 2011년 6월까지 정합화 프로젝트를 완결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IASB와 FASB는 적어도 매월 1회 이상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회계기준을 개선하고 정합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G20 지도자들에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활동수준의 증가로 인해 외부 검토가 필요한 많은 제안사항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발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외부검토자는 제안사항의 수, 중요성, 그리고 일부 제안사항의 경우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제안사항에 대한 유의미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검토자의 능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새로운 기준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외부검토자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합화 계획 변경을 알리는 기자 회견문을 발표하였다.

- 주요 양해각서상 프로젝트는 IFRS와 US GAAP의 중요한 개선과 정합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재조정될 것이다.
- 기준서 제정절차상 이해관계자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분기 중에 발표되는 중요하거나 복잡한 공개 조안은 4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 새로운 work plan에서 다루는 프로젝트의 제안된 시행일과 경과규정 적용방법에 대한 외부검토자의 의견을 요청하는 별도의 문서가 발표될 것이다.

논평

2010년 6월 24일 IASB 의장과 FASB 의장은 변경된 정합화 계획을 설명하고 고품질의 단일 글로벌 회계 기준의 제정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대한 확약을 재확인시키는 서한을 G20 지도자들에게 발송하였다.

6월 26~27일 Toronto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후에 G20 지도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일의 글로벌 회계기준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Pittsburgh 정상회의 후 2009년 9월에 발표된 G20 지도자의 선언문과 달리 새로운 선언문에서는 2011년 6월 시한에 대한 어떠한 언급은 없었다. 선언문에서 밝힌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고품질의 단일 글로벌 회계기준의 완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는 IASB와 FASB에게 2011년 말까지 정합화 프로젝트를 완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IASB가 독립적인 회계기준 제정과정의 틀 안에서 신흥시장경제에 대한 지원활동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개입과정을 더욱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더욱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Mary Shapiro는 연장된 일정이 회계기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feedback에 기여하도록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는 IASB와 FASB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IASB와 FASB의 정합화 계획의 변경이 자국기업을 위한 미국 자본시장의 IFRS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SEC의 2011년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개정된 일정표

2010년 6월 24일, IASB는 정합화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양해각서상 프로젝트와 그 외의 프로젝트에 대한 개정된 work plan을 발표하였다. 변경된 work plan에는 2011년 6월까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로 한 IASB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있는 반면,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일정이 연기된 프로젝트도 있다.

금융상품, 수익인식 및 리스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하였다. 제거와 자본의 특성을 가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프로젝트 및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주요 프로젝트는 연기되었다.

특히, 제거 프로젝트의 목적이 2012년 이전의 정합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IASB와 FASB의 기존 제거모형에 따라 양도자산의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 정도에 관한 공시규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른 추가적인 정합화 노력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평가에 앞서 추가 조사와 분석이 수행될 것이다.

더욱이, Basel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과 기타 금융상품의 재무상태표상 상계(Balance Sheet Netting of Derivative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도입되었다. IASB와 FASB는 금융기관의 재무보고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파생상품과 기타 금융상품의 재무상태표상 상계에 대한 차이를 다루기 위하여 변경사항을 제안하는 별도의 공개조안을 발표할 것이다.

2010년 6월 25일 현재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변경된 IASB의 work plan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기 관련 프로젝트	6월 Q2	2010 Q3	2010 Q4	2011 Q1	2011 Q2	2011 Q3	2011 Q4	2012	양해 각서	공동
연결										
연결 - IAS 27 대체		RT	IFRS						✓	✓
연결 - 연결대상 에서 제외되는 특수목적기업/ 구조화 기업에 대한 공시		RT	IFRS							
연결 - 투자회사		ED			IFRS					✓
제거										
공시		IFRS							✓	✓
공정가치 측정 지침										
공정가치 측정- 지침				IFRS						
공정가치 측정 - 공시	ED			IFRS					✓	✓
금융상품 (IAS 39 대체)									✓	✓
금융상품 - 분류 와 측정 - 금융 부채			RT		IFRS				✓	✓
금융상품 - 손상			RT		IFRS				✓	✓
금융상품 - 위험 회피회계		ED			IFRS				✓	✓
금융상품 - 파 생상품과 기타 금융상품의 재 무상태표상 상 계			ED	RT	IFRS				✓	✓

양해각서 프로젝트	6월 Q2	2010 Q3	2010 Q4	2011 Q1	2011 Q2	2011 Q3	2011 Q4	2012	양해 각서	공동
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표시 - 종단영업				ED			IFRS		✓	✓
재무제표 표시 -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IFRS						✓	✓
재무제표 표시 - IAS 1과 IAS 7의 대체				ED			IFRS		✓	✓
자본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				ED			IFRS		✓	✓
법인세		ED		IFRS					✓	
조인트벤처		IFRS							✓	
리스		ED				IFRS			✓	✓
퇴직급여										
퇴직급여 - 확정 급여제도				IFRS					✓	
퇴직급여 - 해고 급여		IFRS								
수익인식					IFRS				✓	✓

기타 프로젝트	6월 Q2	2010 Q3	2010 Q4	2011 Q1	2011 Q2	2011 Q3	2011 Q4	2012	양해 각서	공동
연차개선 2009-2011			ED		IFRS					
배출권 거래제도							ED	IFRS		✓
추출활동				AD						
보험계약		ED					IFRS			✓
부채 (IAS 37 개정)				IFRS						
경영자 주석		CG								
요금규제산업				IFRS						

개념체계 - 진행 중인 문서	6월 Q2	2010 Q3	2010 Q4	2011 Q1	2011 Q2	2011 Q3	2011 Q4	2012	양해 각서	공동
Phase A: 목적 과 질적 특성		Final chapter								✓
Phase B: 구성 요소와 인식					TBD					✓
Phase C: 측정			DP			ED				✓
Phase D: 보고기업			Final chapter							✓

* IFRS - 최종 기준서, ED - 공개조안, RT - 전문가 회의, TBD - 프로젝트 포함여부에 대한 결정 예정
AD - 의제 상정여부에 대한 결정 예정, CG - 지침 완성

논평

2010년 3월 IASC 재단에서 주최한 IFRS 회의에서 IASB 의장인 David Tweedie 경(卿)은 부채 프로젝트 (IAS 37 개정)가 변경된 work plan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IASB는 의견수렴기간 동안 다수의 외부검토자가 표명한 우려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David 경은 설명하였다. 따라서, 최종 기준서가 언제 발표될 것인지 불확실하다. 또한, David 경은 조인트벤처 회계에 대한 최종 기준서는 최종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의 발표와 연계하여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개정된 work plan에 포함된 주요 IASB 프로젝트의 요약

다음 내용은 변경된 work plan에 포함된 IASB 프로젝트의 목적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각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iasplus.com을 참고한다.

연결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배에 기초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단일의 연결 모형을 개발하고 구조화 기업(structured entity)에 대한 당사자의 관여와 관련하여 개선된 공시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공정가치 측정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공정가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향상시켜 모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개발하는데 있다.

금융상품: 자본의 성격을 가지는 금융상품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분상품과 비지분상품(부채)을 구분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금융상품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금융상품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2010년 5월 공개조안 발표)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공정가치옵션(fair value option)에 따라 당기순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에 대하여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익 외의 항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다루는데 있다.

위험회피회계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원칙을 제공하고 그 결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현행 위험회피회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단순화하는데 있다.

손상(2009년 11월 공개초안 발표)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기대손실모형의 도입을 통해 금융자산의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과 신용도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재무제표 표시

주요 프로젝트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다른 항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일관성 목적)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재무제표 표시 방법, 정보의 통합과 분할, 그리고 직접법에 의한 영업현금흐름의 표시를 다루는데 있다.

중단영업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중단영업의 일반적인 정의를 개발하고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의 차분과 관련된 일반적인 공시를 제공하는데 있다.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2010년 5월 공개초안 발표)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모든 기업이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단일의 보고서에 연속적으로 표시하고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추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부분과 재분류되지 않는 부분으로 각각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투명성과 표시방법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보험계약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규정을 다루는 보험계약의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리스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재무상태표에 리스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회계처리를 폐지하는 포괄적인 리스 회계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퇴직급여(2010년 4월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개초안 발표, 2010년 3분기 중 해고급여에 대한 기준서 발표 예정)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범위접근법(corridor approach)을 폐지하고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확정급여제도와 해고급여에 대한 인식, 표시 및 공시규정을 다루는데 있다.

수익인식(2010년 6월 공개초안 발표)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모든 기업과 산업(즉,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되는 의무이행개념(performance obligation concept)에 근거한 단일의 수익인식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주요 연락처

IFRS global office

Global IFRS Leader – Clients and Markets

Joel Osnoss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Global IFRS Leader – Technical

Veronica Poole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Leader – Global IFRS Communications

Randall Sogoloff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IFRS centers of excellence

Asia-Pacific

Korea

이길우

kilwlee@deloitte.com (Tel: 02 6676 3980)

Hong Kong

Stephen Taylor

iasplus@deloitte.com.hk

Melbourne

Bruce Porter

iasplus@deloitte.com.au

Tokyo

Shinya Iwasaki

iasplus-tokyo@tohmatsu.co.jp

Americas

New York

Robert Uhl

iasplusamericas@deloitte.com

Montreal

Robert Lefrancois

iasplus@deloitte.ca

Buenos Aires

Fermin del Valle

iasplus-LATCO@deloitte.com

Europe-Africa

Brussels

Laurent Boxus

BEIFRSBelgium@deloitte.com

Copenhagen

Jan Peter Larsen

dk_iasplus@deloitte.dk

Frankfurt

Andreas Barckow

iasplus@deloitte.de

Johannesburg

Graeme Berry

iasplus@deloitte.co.za

London

Elizabeth Chrispin

iasplus@deloitte.co.uk

Madrid

Cleber Custodio

iasplus@deloitte.es

Moscow

Michael Raikhman

iasplus@deloitte.ru

Paris

Laurence Rivat

iasplus@deloitte.fr

Rotterdam

Ralph ter Hoeven

iasplus@deloitte.nl